

# 신비한 밤의 모습, 꿈결같은 산문

내 서가에서 뽑은 아름다운 책,  
《나에게 노래하는 밤들》

백순덕 | '레토베르소' 대표 · 예술제본장정가

예술제본 장정가들이 가장 기쁠 때는

'아름다운 책'을 제본 장정할 때다.

아름다운 장정은 원래 '아름다운 책'에 걸맞은

예술성이라는 옷을 입고 보존성이라는

영양을 공급하는 일이다.

7년간의 프랑스 체류기간의 낱알을 기억케 하는 것은 그 시간을 함께 했던 80여권의 책들이다. 연도별 기억보다는 내가 장정했던 어설픈 책 한 권을 집어들었을 때 지나간 시간의 한자락 한자락이 아주 선명하게 눈앞에 떠오른다. 그 책을 만듦 당시의 상황, 기분, 느낌까지도.

95년, 엄격했던 사립학교 3년 과정을 마치고 새로 입학한 새 학교에서 만들었던 이 책 《나에게 노래하는 밤들 (Les nuits qui me chantent...)》은 그 대표작이다. 처음 다녔던 학교가 진정한 장인(artisan) 양성을 위해 고전적·정형화된 제본방식을 고수했다면 새 학교는 튼튼한 기초에 바탕을 두고 '자유로움 속에서의 무한한 창의력 발현'이라는, 이른바 책을 통한 예술가 배출을 목적으로 참신한 수업을 진행했다. 따라서 제본할 책을 구입하는 데도 다양한 선택이 요구됐고 나는 처음으로 이 '아름다운 책'을 떨리는 손으로 고르고 거금 350프랑을 지불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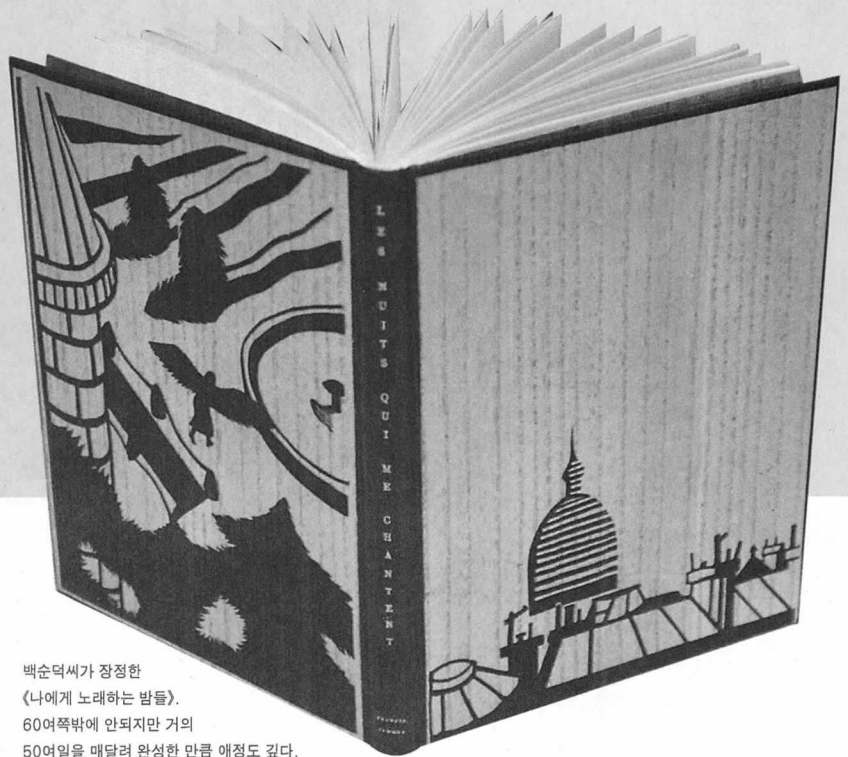
우리가 말하는 '아름다운 책'의 조건은 대략 지질의 우수성, 좋은 내용, 아름다운 삽화들, 귀중본, 일련 번호가 있는 한정판, 정성이 깃든 책

등이다. 이 책 《나에게 노래하는 밤들》은 이런 아름다운 책의 조건을 웬만큼 만족시킨다.

이 책은 1928년 10월 30일 파리의 라우르인쇄소에서 101번부터 850번까지 찍은 것 중 604번째로 태어났다. 종이도 리브라는 꽤 유서깊은 고급 종이 제지사에서 0.3mm의 블랭지를 쓴, 70여년의 세월을 간직한 책이다. 앞뒤 표지 안쪽의 지면에 시간의 흐름이 느껴지는 흔적을 빼면 기막히게 깨끗한 상태로 남아 있었다. '1933년 로잔'이라는 서명을 보건대 스위스에서 구입한 이가 주인인 듯하다. 이렇게 말짱하게 내 손에 와 준 것으론 봐 그동안 조심스런 대접을 받았지 싶다.

이 책의 저자인 프란시스 잠드는 1868년 남프랑스의 베른느에서 태어나 바스크에서 자리잡은 프랑스 작가로 지드와 말라르메의 호평을 받은 사람이다. 글쓰기에 있어서 그의 덕목은 간결함에 있으며 자연과 어린시절, 이국 정서를 소재로 자유로운 식구를 구사한다.

본문의 <스페인 오두막에서의 밤>, <저녁을 마친 아이들의 밤>, <그 파랑새의 밤> 등의 제목에서 볼 수 있듯 그의 시적 소재는 밤의 감흥과 함께 어우러진 꿈결같은 산문이다.



백순덕씨가 장정한  
《나에게 노래하는 밤들》.  
60여쪽밖에 안되지만 거의  
50여일을 매달려 완성한 만큼 애정도 깊다.

그리고 그 신비한 밤의 모습을 영상화하는 아름다운 삽화들 또한 이 책을 '아름다운 책'이 되게 한다. 내가 만든 앞표지는 <사랑하는 집의 밤>, 뒷표지는 <스페인 오두막에서의 밤>에 나오는 삽화를 응용해서 꾸몄다.

예술제본장정가들이 가장 기쁠 때는 '아름다운 책'을 제본 장정할 때다. 아름다운 장정은 원래 '아름다운 책'에 걸맞은 예술성이라는 옷을 입고 보존성이라는 영양을 공급하는 일이다. 60여쪽밖에 안되는 이 책을 제본하고 장정하는데 거의 50여일을 매달렸다. 그만큼 애정도 깊다. 이 책을 나는 '아름다운 책'으로, 그리고 사랑스런 자식처럼 생각하고 있다.

나는 지난 서울국제도서전 기간 동안 개·폐관 시간에 맞춰 책들을 썼다, 풀었다 하는 촌스러운 의식을 계속했다. 혹시 모를 도난 방지 - 나에게나 소중할 뿐, 그 누가 거들떠나 본다고 - 이기도 했지만 사실은 그 어둡고 황량한, 낯선 전시관에 내 '새끼들'을 우두커니 세워두고 싶지 않았기 때문임을 고백한다. ●